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월 십륙일 토요 죵간 갑죤

독립신문

데 뵈 이 십 삼 호

이 권

론셜

금월 십 삼일에 나리신 죠칙을 인연 ᄒᆞ야 죠션 국명이 변 ᄒᆞ야 대한국(大韓)이 되엿스니 지금 브터는 죠션 인민이 대한국 인민이 된 쥴노 ᄅᆞᆯ 아시오

○ 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가 이 론셜을 지여 신문샤에 보내엿기에 좌에 긔지 ᄒᆞ노라

나라 ᄆᆞ다 그 나라 풍쇽의 좃코 언잔 ᄒᆞᆫ것이 뎡치에 ᄆᆡ우 관계가 되는지라 나라이 잘 되랴면 악ᄒᆞᆫ 풍습들을 바로잡지 아니 ᄒᆞ고는 화락 ᄒᆞ고 문명ᄒᆞᆫ 디경에 나가 보지 못 ᄒᆞᆯ지라 북미쥬 합즁국 남방은 긔후가 더 운고로 힘 드는 일 ᄒᆞ기가 괴롭고 어려온 ᄌᆞ로에 이프리가쥬 흑인과 아세아쥬 황인들을 사다가 종을 ᄉᆞᆷ아 모든 쳔역을 식히는ᄃᆡ 슈십년 전에 정부에셔 그 종 두는 풍쇽을 금 ᄒᆞ되 종들을 둔 사ᄅᆞᆷ들이 종시 듯지 아니 ᄒᆞ는지라 이에 그 나라 안에 의리를 ᄇᆡᆨ히랴 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ᄒᆞᆫ 고로 이 ᄇᆡᆨ성들과 정부에셔 말 ᄒᆞ되 사ᄅᆞᆷ의 권리는 텬리의 ᄌᆞ연 ᄒᆞᆷ이라 흑 인종이나 황인종이 약 ᄒᆞ고 학문이 업셔셔 남의게 ᄉᆞᆯ니여 와셔 종 노릇을 ᄒᆞ다고 그 사ᄅᆞᆷ들을 즘승과 ᄀᆞᆺ치 부리니 의리는 ᄉᆡᆼ각지 아니 ᄒᆞ고 다문 내 몸에 편리 ᄒᆞᆫ것만 죵히 넉임이니 이 사ᄅᆞᆷ들도 하ᄂᆞ님쎄셔 내신 사ᄅᆞᆷ이어ᄂᆞᆯ 엇지 사ᄅᆞᆷ이 사ᄅᆞᆷ을 사ᄅᆞᆷ으로 대접지 안코 즘승과 ᄀᆞᆺ치 대졉 ᄒᆞ야 사다가 불일 도리가 잇스리요 이런 풍쇽이 우리 나라에 잇고는 텬복을 밧기는 시로히 반다시 텬벌을 면치 못 ᄒᆞ겟스니 괴이ᄒᆞ이 풍쇽을 업셰야 사ᄅᆞᆷ 된 즉분 ᄒᆞ겟다 ᄒᆞ고 의리를 목숨과 저산보다 더 즁히 넉이고 나셔셔 남방과 여러해 동안을 싸화 괴이ᄒᆞ이 남방을 익이고 그 종들을 다 쇽량 ᄒᆞ여 주엇ᄂᆞᆫ지라 다문 이 일뿐 아니요 이 나라에셔 의리로 쥬쟝을 ᄉᆞᆷ고 뎡치 샹파 권리 샹에 모든 일들을 텬리와 인정에 합당 ᄒᆞ게 문든 풍쇽과 ᄉᆞ업이 만ᄒᆞᆫ 고로 텬복을 밧아 지금이 나라가 부 ᄒᆞ기도 세계에 데일이요 화평ᄒᆞᆫ 복을 누리기도 세계에 데일이라 이 나라 사ᄅᆞᆷ들이 그 종들 쇽량 ᄒᆞᆫ것은 남을 사ᄅᆞᆷ으로 대접 ᄒᆞ여야 나도 남의게 사ᄅᆞᆷ으로 대접을 밧겟스니 그 사ᄅᆞᆷ들을 넉넉히 잡아다가 부릴 계제가 잇슬지라도 그 사ᄅᆞᆷ의 사ᄅᆞᆷ된 권리를 쎄앗지 안코 사ᄅᆞᆷ은 사ᄅᆞᆷ을 동등으로 대접 ᄒᆞ는 경계로ᄃᆡ 그때 미국에셔 종 노릇 ᄒᆞ던 사ᄅᆞᆷ들이 ᄌᆞ긔 나라 사ᄅᆞᆷ들도 아닐ᄲᅮ더러 인종도 다른 인종이로ᄃᆡ 이럿케 대접을 ᄒᆞ엿거ᄂᆞᆯ 엇지 우리 대한국 사ᄅᆞᆷ들은 ᄒᆞᆫ

텬ᄌᆞ 밋히셔 ᄇᆡᆨ성 노릇 ᄒᆞ는 동포 형뎨들을 이 흑 셰력이나 지산이 죰 잇다고 잔약ᄒᆞᆫ 형뎨를 ᄆᆡ 도야지 ᄀᆞᆺ치 돈푼 주고 문셔 ᄒᆞ야 사다가 두고 물건 모양으로 부리며 ᄯᅩ ᄯᅳᆯ들을 시집 보낸다 ᄒᆞ고 몃 ᄇᆡᆨ량 몃 쳔량식들 밧고 팔아 먹으니 이런 풍쇽들은 다 텬리와 인정에 합당치 아니 ᄒᆞᆫ 풍쇽들이라 힝실이 챡ᄒᆞᆫ 사ᄅᆞᆷ은 내가 셰력과 지산이 남 보다 만트릿도 나의 셰력으로 남의 권리를 무리 ᄒᆞ게 쎄앗지도 아니 ᄒᆞᆷ ᄲᅮᆫ더러 간난 ᄒᆞ고 약ᄒᆞᆫ 사ᄅᆞᆷ을 아모죠록 구졔 ᄒᆞ여 주며 ᄉᆞᆯ렁 내가 간난 ᄒᆞ드릿도 나의 간난 ᄒᆞᆫ것으로 남을 방히롭게 아니 ᄒᆞ거ᄂᆞᆯ 엇지 내가 셰력과 지산이 죰 잇다고 남의 텬싱 권리를 쎄앗으며 내가 죰 간난 ᄒᆞ다고 ᄌᆞ식을 팔아 먹ᄂᆞᆫ 무도ᄒᆞᆫ 인종이 어ᄃᆡ 잇스리요 셰샹 물건을 다 사ᄅᆞᆷ이 팔고 사고 ᄒᆞᆯ 권리가 잇스되 사ᄅᆞᆷ이 사ᄅᆞᆷ을 사고 팔고 ᄒᆞᆯ 권리는 업ᄂᆞᆫ것은 쳔ᄒᆞᆫ 사ᄅᆞᆷ이나 귀ᄒᆞᆫ 사ᄅᆞᆷ이나 하ᄂᆞ님쎄셔 밧은 사ᄅᆞᆷ의 권리는 다 ᄀᆞᆺ ᄒᆞᆫ 텬ᄌᆞ이라 사ᄅᆞᆷ이 사ᄅᆞᆷ을 팔고 사다는 말ᄆᆞᆫ ᄒᆞ여도 넘으 참람 ᄒᆞ도다 ᄌᆞ식을 팔아 먹고 동포 형뎨를 사다가 부리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무엇이라 일홈 ᄒᆞ여야 올을ᄂᆞᆫ지 ᄌᆞ긔들 ᄆᆞᄋᆞᆷ에도 더러 ᄉᆡᆼ각이 잇겟ᄂᆞᆫ지라 이상 ᄒᆞᆫ것은 지금 한문을 독실히 슝상 ᄒᆞ야 ᄉᆞ셔 삼경 모든 글을 만히 공부 ᄒᆞ고 청국 학문 밧괴ᄂᆞᆫ ᄃᆡ 죠흔 학문이 세

계에 다시 또업는 줄노 싱각 ᄒᆞ는 사ᄅᆞᆷ의 집일소록 종들이 만코 한문을 만히 ᄂᆡ은 션비일지라도 가세ᄆᆞᆫ 좀 간난 ᄒᆞ면 ᄯᅩᆯ들 은ᄃᆡ 잘 팔아 먹으니 한문을 비홀 ᄲᅢ에 항업 상 일은 ᄒᆞ나도 ᄀᆞᄅᆞ치지 아니 ᄒᆞ며 비호지도 안코 또ᄒᆡᆷ 드는 일 ᄒᆞ기는 실혀 ᄒᆞ는 ᄉᆞᄃᆞᆨ이라 이런 악ᄒᆞᆫ 풍쇽을 힝 ᄒᆞ는 사ᄅᆞᆷ들을 ᄉᆞᄃᆞᆨ에 셜령 이런 힝실 아니 ᄒᆞ는 그 나라 쇽에 그럿케 악ᄒᆞᆫ 풍쇽이 잇스되 이 풍쇽이 잇는것을 붓그러워 ᄒᆞ고 이석히 넉여 업셰랴는 사ᄅᆞᆷ은 업는 고로 그럿치 아니 ᄒᆞᆫ 사ᄅᆞᆷ이나 다 ᄀᆞᆺᄒᆞᆫ 줄노 넉이는지라 ᄂᆞᆷ들은 이럿케 들여다 보는 증거가 잇스니 이런 풍쇽을 업셰기 젼에는 례의지 방 사ᄅᆞᆷ이노라고 힝여 거즛 말들 마시오 인도국에 엇던 풍쇽과 엇던 풍쇽을 그져 량반이 잇다가 지금 엇던 곤란을 당 ᄒᆞ나뇨 남의게 쇽디가 되고 국쥬에 염병이 쟈죠 일어 나고 흉년이 쟈죠 들어 쥭는 쟈가 여러 만명이요 참혹ᄒᆞᆫ 형상을 이로 말ᄒᆞᆯ 슈가 업스니 이 엇지 련리와 인졍에 억이는 풍쇽과 일들을 힝 ᄒᆞ다가 련벌을 밧ᄂᆞᆫ 것이 아니뇨 동등 형데를 즘승과 ᄀᆞᆺ치 대졉 ᄒᆞ고 ᄌᆞ식을 팔아 먹는 풍쇽을 그져 두고는 나라이 진보도 못 될ᄲᅮᆫ더러 남의 게 슈치도 씻지 못 ᄒᆞ고 쟝릭 련벌을 면치 못 ᄒᆞ리로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ᄃᆞᆺ고 보고 아는 고로 네가 귀샤에 이 론셜을 지여 보내여 우리 나라 동포 형데들이 이 풍쇽이 악ᄒᆞᆫ 줄을 ᄭᅢ다라 첫지 종들을 쇽량이 되ᄒᆞ여 줄것 ᄀᆞᆺᄒᆞ면 ᄌᆞ긔들도 쇽량이 될것이요 ᄌᆞ녀를 팔지 아니 ᄒᆞᆯ것 ᄀᆞᆺᄒᆞ면 ᄌᆞ긔 몸들도 남이 매매를 못 ᄒᆞ게 될터이니 젼국 인민이 좀을 면 ᄒᆞᆯ 디경이면 우리 나라는 ᄌᆞ연히 남이 좀으로 대졉 ᄒᆞ지 못 ᄒᆞᆯ지라 아모죠록 모도 ᄭᅥ쳐 동심 합력 ᄒᆞ야 우리 대황뎨 폐하의 졈즌 ᄒᆞᆫ 빅셩이 되야들 보ᄒᆞ옵시다

관보 호외 십월 십삼일

○ 음력 구월 십팔일

태극뎐에

친림 ᄒᆞ샤 뎐하에

죠고 ᄒᆞ실 ᄲᅢ에

출궁 졍시는 진졍 삼각이요 동일에

태극 뎐에

친림 ᄒᆞ샤 뎐하에

죠고 ᄒᆞ실 ᄲᅢ에

황태ᄌᆞ 힝례 ᄒᆞ실 졍시는 진졍 삼각이요 동일

대힝 황후

빈뎐 ᄀᆡ 명졍 졍시는 신쵸 일각 이더라

십월 십스일

○ 이ᄃᆞᆯ 십이일

태극뎐에 어 ᄒᆞ샤 빅관의 하표 밧으실 ᄲᅢ에

출궁 문로는 치쥬문으로 ᄒᆞ시고 십삼일 뎐하에

죠고 ᄒᆞ실 ᄲᅢ에

출궁 문로는 치쥬문으로 ᄒᆞ셧더라 ○ 봉상샤 졔죠 리근슈 궁닉부 특진관 민응식

대힝 황후 ᄀᆡ 명졍 셔샤관 리지슌 셔샤관

례챠 김구현 명 시죵원 시죵 홍우샹 비셔원승 민철훈 림 장례원 장례 장례 민철훈 겸림 시죵원 시죵 민영선 의원 면 본관 장례원 겸 장례 김영목 의원 면 겸림

호외 십월 십스일

○ 음력 구월 십구일

태극뎐에

친림 ᄒᆞ샤 뎐하에

명헌 태후 상보 시에

출궁 졍시는 오졍 삼각이요 동일

태극뎐에

친림 ᄒᆞ샤 칙

황태ᄌᆞ 비 시에

출궁 졍시는 미졍 삼각이더라

전보

○ 론돈 십월 십일일 발 ᄇᆞᆯ란셔 군스들이 인프리가 포토노보를 ᄯᅥ나 가기로 가셔 레이가스 즁앙으로 들어 갓ᄂᆞᆫᄃᆡ 그 ᄯᅡ에 잇ᄂᆞᆫ 영국 군스와 샹지 될 염녀가 잇서 레이가스 졍부에서 ᄇᆞᆯ란셔 군스들이 영국 쇽디로는 범치 못 ᄒᆞ게 쥬션을 ᄒᆞᆫ다더라 ○셔반아 졍부에셔 규바를 조쥬 권을 주게 작졍 ᄒᆞ엿스나 규바에 잇ᄂᆞᆫ ᄇᆞᆯ란셔 군스들이 어히 쳐 업셰랑으로 군스 이만명과 새스 령관 ᄇᆞᆯ란코 대장을 더 규바로 보내엿스며 여송에도 란리를 아죠 간졍 ᄒᆞᆯ 츠로 군스를 더 보내고 새 관찰스를 보내엿다더라 ○이탤리 졍부에셔 졍부 례산이 부족 ᄒᆞ야 상셰를 더 올녓더니 이탤리 셔울로ᄆᆞ에 장스들이 요란 ᄒᆞ게 ᄯᅥ든다더라 ○영국 동리 메드스돈에 운긔가 싱겨 발셔 일쳔 오빅 오십 륙명이 병이 들엇ᄂᆞᆫᄃᆡ 그 즁에 륙십 팔명은 쥭엇다더라 그 동리 판윤이 민간에 출염을 겻으워 이 병든 사ᄅᆞᆷ의 가쇽들을 도아 준다더라

북신문

○ 셩상ᄆᆡ셔 음력 구월 십칠일에 대황뎨 위에 나아 가시고 임의 진하를 ᄇᆞᆺ셧스니 각도 관찰스와 군슈들도 곳 망하례 ᄒᆞ라고 ᄂᆡ부에셔 각도 관찰부에 보와 훈령으로 지위 ᄒᆞ엿다더라

외방 통신

○ 무산군 농민 박홍민등이 닉부에 쇼지 ᄒᆞ기를 본군 진상 녹용은 샹납 돈 쥼에 시가ᄃᆡ로 사셔 밧치는것이어ᄂᆞᆯ 녹용 갑을 민간에 의례로 ᄆᆞᆯ녀 밧으니 아혹 ᄒᆞ교 신식 이후에는 호포와 결셰 돈 외에는 쓸노 밧는것은 업셋다ᄒᆞᄃᆡ 쇼위 운하미 ᄒᆞᆫ셤에 샤ᄉᆞ로 두셤식 젼과 ᄀᆞᆺ치 분비 ᄒᆞ여 밧으니 아혹 ᄒᆞ교 무론 닉외 림 ᄒᆞ교 비록 공정 ᄒᆞ교 일아는 사ᄅᆞᆷ이라도 빈손으로는 못 ᄒᆞ니 아혹 ᄒᆞ며 흠이 업는ᄃᆡ 셰를 물니는것이 간졀히 원통 ᄒᆞ고 관쟝 출입 ᄒᆞ는ᄃᆡ 지닉는 길에 공궤 ᄒᆞ는것이 모도 빅셩의 폐막이니 일병 혁파 ᄒᆞ고 광젼과 샤치에 쥭증 식히는 폐단을 엄히 금ᄒᆞ며 졀목을 문드러 반포 ᄒᆞ여 ᄃᆞ라나고 ᄒᆞ엿다더라

○ 강원쥬등이 금년 륙월에 고셩군 두미도를 쳐음으로 ᄀᆡ쳑 ᄒᆞ고 근근히 쥬졉 ᄒᆞ여 사ᄂᆞᆫᄃᆡ 교셩 ᄃᆡ방ᄃᆡ에셔 그 셔음에 사슴을 기르ᄂᆞᆫ가 쳑간 ᄒᆞᆫ다 칭 ᄒᆞ고 병뎡을 죵죵 들여 보내여 위협 ᄒᆞ고 신ᄀᆡ쳑 ᄒᆞ고 사ᄂᆞᆫ 빅셩들이 지보 ᄒᆞᆯ슈 업다고 ᄒᆞᆫ다더라

○ 팔월 이십 삼일 폭우에 셩텬군 경닉에셔 사ᄅᆞᆷ 오십 구명이 물에 ᄲᅡ져 쥭고 인가 이빅 이십 이호가 물에 표실 되고 뎐로 일빅 ᄉᆞ십 ᄉᆞ결 삼부 곳이 물에 ᄯᅥ러져 강이 되엿다더라

잡보

○ 각쳐 죵들이 셔울에 들어 오면 그 어느 졀에 잇스며 무슴 일노 어ᄃᆡ ᄃᆞ니ᄂᆞᆫ지 ᄎᆡ탐 ᄒᆞ야 그 죵이 실상 ᄇᆞᆯ일이 잇서셔 온 것 ᄀᆞᆺᄒᆞ면 쟝안에 들어 오게 ᄒᆞ고 만일 일이 업시 쟝안에 들어 와셔 이리 더리 ᄒᆞᆫ만히 ᄃᆞ니며 황잡 ᄒᆞᆫ 일을 ᄒᆞᄂᆞᆫ 쟈는 일병 엄히 금단 ᄒᆞ라고 경무쳥에셔 근일에 신칙이 대단 ᄒᆞ다더라

○ 죠션에 나와 잇던 아라샤 병뎡 ᄒᆞᆫ명이 병이 들어 이ᄃᆞᆯ 십일에 쥭엇ᄂᆞᆫᄃᆡ 아라샤 공ᄉᆞ관과 ᄇᆞᆯ란셔 공ᄉᆞ관에셔 그 쥭은 병뎡을 위 ᄒᆞ야 치샹 ᄒᆞᄂᆞᆫ 례를 힝 ᄒᆞ노라고 그ᄂᆞᆯ 오젼 여ᄃᆞᆸ시 브터 열시 ᄶᅥ지 두 공관에 국긔를 나직히 ᄃᆞᆯ앗다가 힝례 ᄒᆞᆫ 후에는 그 긔를 도로 젼과 ᄀᆞᆺ치 ᄂᆞᆸ히 ᄃᆞᆯ앗다더라

○ 이ᄃᆞᆯ 아흐릐놀 식벽에 양화도 진뒤에셔 쳥국 사ᄅᆞᆷ 샤유년 의신긔 진가유 등이 ᄀᆞᆫ 바다에라도 가히 릐왕 ᄒᆞᆯ문ᄒᆞᆫ 풍범션에다가 홍삼 ᄉᆞ믈 아홉 짝을 실다가 경무쳥에 집유 ᄒᆞ엿스나 그 범금 ᄒᆞᆫ 사ᄅᆞᆷ인쥭 다 외국 사ᄅᆞᆷ인 교로 경무쳥에셔 쳔단히 가ᄃᆞᆯ 길이 업셔 이 ᄉᆞ연으로 외부에 보교 ᄒᆞ고 쟝뎡ᄃᆡ로 증판 ᄒᆞ려 ᄒᆞ엿더니 외부에셔 한셩부로 훈령 ᄒᆞ여 ᄒᆡ 공관에 죠회 ᄒᆞ고 판리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 남셔 보습교지셔 샤쥬젼 ᄒᆞ다가 일젼에 잡힌 쳥국 사ᄅᆞᆷ 손유삼은 외국 사ᄅᆞᆷ인 교로 경무쳥에셔 외부에 보교 ᄒᆞ엿더니 외부에셔 한셩부로 훈령 ᄒᆞ야 ᄒᆡ 공관에 죠회 ᄒᆞ고 증판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 북셔 슌검 리규셕이가 밤에 셤을 넘다가 현착 되여 십일 붕급을 감 ᄒᆞ엿다더라

○ 젼 션혜쳥 압헤셔 부평군 사ᄅᆞᆷ 계집 ᄒᆞ나이 병이 ᄅᆞᆸ엇게ᄂᆞᆯ ᄒᆡ셔 슌검이 그 계집을 병원으로 보내여 치료 식히려 ᄒᆞᄂᆞᆫ 조음에 엇더ᄒᆞᆫ ᄒᆞᆫ 녀인이 그 병든 계집을 불상히 넉여 죵현 교당으로 다리고 갓다더라

○ 남묘 압헤 사ᄂᆞᆫ 김츈호의 팔세 된 녀아 오목이가 다홍셔양목 젹오리에 다홍셔양 항나 치마 입고 집신 신고 음력 구월 십팔일에 뎌의 집에셔 나갓ᄂᆞᆫᄃᆡ 죵젹이 망연 ᄒᆞᆫ지라 누구던지 이런 녀아ᄅᆞᆯ 보거던 뎌의 집으로 지시 ᄒᆞ여 ᄃᆞ라나고 편지가 왓더라

○ 슌원구 사ᄂᆞᆫ 홍샤찬이가 쏠 두셤을 암쇼게 실교 셔울 샹미젼 ᄒᆞᄂᆞᆫ 송영근의 여각에다 짐을 나리고 쇼를 거리에다 ᄆᆡ엿더니 쇼가 간 곳이 업ᄂᆞᆫ지라 쇼 님ᄌᆞ 홍가가 샹동 교번쇼 슌검 김봉슌의게 쇼 일흔 연유를 말 ᄒᆞᆫ즉 그 슌검이 쇼 님ᄌᆞ 안동 ᄒᆞ야 ᄉᆞ면으로 슈탐 ᄒᆞᆫ즉 허병 다름방에셔 엇더ᄒᆞᆫ 병뎡이 그 쇼를 가져다가 방장 결젹질 ᄒᆞᆫ 병뎡을 급히 잡으려고 ᄯᅩ쳔즉 그 병뎡이 몬져 긔미를 알고 쥭기를 헤아리지 안코 도망질 ᄒᆞᆫ 고로 그 병뎡은 못 잡고 다문 쇼문 챠ᄌᆞ셔 ᄃᆡ 님ᄌᆞ 홍가를 주어 보닛다니 병뎡도 이런 도젹질을 ᄇᆡ쥬에 ᄒᆞᄂᆞᆫ지

○ 북셔 종산 사ᄂᆞᆫ 리창년의 집에 강도 륙칠 명이 각기 몽동이를 가지고 ᄃᆞᆯ녀 들어 지산을 모도 ᄲᅦ셔 갓다니 ᄒᆡ셔 슌검은 후 몰나던지

○ 요ᄉᆞ이 셔울 시가ᄂᆞᆫ 엽젼으로 샹미 ᄒᆞᆫ되에 일곱돈 팔푼 ᄌᆞᆼ미 ᄒᆞᆫ되 엿돈팔푼 찹쏠 ᄒᆞᆫ되 엿돈 두푼 모밀 ᄒᆞᆫ되 닷돈 너푼팟 ᄒᆞᆫ되 닷돈 너푼 콩

석탄 광고

○진고기 산일 상회에서 (山一商會) 평양 석탄과 일본 석탄을 만히 무역 ᄒᆞ야 셔울 룡산 제물포에 지점을 버리고 큰 장ᄉᆞ를 ᄒᆞ는ᄃᆡ 그 상회에서 파는 석탄은 품도 좃코 갑도 ᄊᆞ며 올에는 일본 석탄이 작년보다 빗ᄉᆞᆫ 고로 미리 쥬문 ᄒᆞ거드면 ᄊᆞ게 살터이요 평양 무연탄도 풍범션으로 만히 실어다가 파니 누구던지 겨울에 쓸 석탄을 미리 와셔 쥬문 ᄒᆞ시거드면 상등 석탄을 ᄊᆞ게 살터이니 일긔가 치워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속히 와셔 쥬문 ᄒᆞ시요

진고기 데이번디 산일 상회
룡산 산일 상회 지점
제물포 산일 상회 지점

광고

쥬지 회샤 各物 新荷 輸着

○본 회사에셔 죠흔 권연 물셔리와 모ᄌᆞ와 샹등 가쥭 슈ᄃᆡ와 안경과 셔양 우산과 향슈 비누와 셔양 속 고의며 젹삼과 깁슈건과 면슈건과 셔양 신과 모직과 명쳡 갑과 셔양 의복에 쓰는 목도리와 보션과 손거울과 권연쵸와 셔양 의복의 부쇽품과 문방 제구와 가쥭 장갑들이며 기타 화양잡화 제류를 만히 파니 제공은 다 와셔 사가시요 泥峴 西洋 雜貨商 十一十二

○ 누구던지 조흔 셔양 편지 조회와 봉투를 사고십흔이는 독립 신문샤 ᄉᆞ무쇼로 와셔 사 가시요

○養鷄法 撮要 定價葉一兩 七十七

ᄃᆞᆰ 기르는 법을 외국 학문가에셔 신 발명 ᄒᆞ야 각국에 지금 성힝 ᄒᆞᄂᆞᆫ 요법을 국 한문으로 번력 ᄒᆞ야 출판 ᄒᆞ엿ᄂᆞᆫᄃᆡ 이 칙에 잇ᄂᆞᆫ 방법ᄃᆡ로 ᄒᆞ면 젹은 쟈본을 ᄀᆞ지고 크게 ᄃᆞᆰ을 길너 큰 리가 잇슬터이니 누구던지 이런 사업에 유의 ᄒᆞᄂᆞᆫ이는 이 칙을 사셔 보시요 발미 쳐는 정동 독립 신문샤

훈동 이문샤
죵로 대동 셔시

영국 만국 성경 회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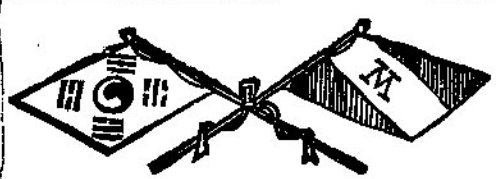
본 회사에셔 죠션 셔울에 지점을 비셜 ᄒᆞ고 죠션 언문 성경과 한문 성경을 각식으로 박히고 미여 파니 누구던지 성경 사보고 십흔이는 지졈 회샤쟝 커닌류어싸의 집으로 오시오 정동 새 교당 엽헤 비지 학당 들어 가는 길인ᄃᆡ 대문 압헤 우물 박인 집이라

七二十

○새로 내는 신문이라

그리스도 신문은 농ᄉᆞ 업과 외방 통신과 외국 통신과 관보와 잡보와 각부 통신과 사름의게 유익 ᄒᆞᆫ것을 다 이 신문에 올닐터이니 사다 보기를 ᄇᆞ라노라 이 신문국은 대 정동 미국 목ᄉᆞ 원두우 집이요

○**독립 신문샤**에셔 새로 박ᄂᆞᆫ 명함 그게를 미국셔 ᄀᆞ져 와 지금 각식 명함들을 방장 박으니 누구던지 명함 박고십흔이는 **신문샤**로 긔별 ᄒᆞ면 상등 죠회에 영ᄌᆞ와 한문과 국문을 쇼청ᄃᆡ로 다 박아 줄터이오 갑도 샹당 ᄒᆞ고 품슈는 죠션 안에 ᄃᆡ일일터이니 모도 **독립 신문샤**로 와셔 박아 가시오



○ 世昌洋行 제물포
화륜션 현익호가 이ᄃᆞᆯ 십구일 오젼 아홉 시에 제물포셔 ᄯᅥ나 증남포와 보산을 갈터이니 션 ᄀᆡ들과 짐 붓치리들은 미리 제물포 셰창 양힝으로 와셔 ᄆᆞᆺ치시요